적멸보궁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문화재청 오는 23일 지정 예고
분황사계 모전석탑 전통 전승
석회암 같은 만든 벽돌로 조성
조선 초 형성 보궁신앙 대표塔
안동 봉황사 대웅전 보물 승격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보물 제410호, 사진)이 드디어 국보로 승격된다. 또한 안동 봉황사 대웅전(경북 유형문화재 제141호)은 보물로 승격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 23일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고 경북 유형문화재 제141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로 승격을 지정예고했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하 수마노탑)'이 소재한 정암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이다. 정암사에는 수마노탑을 바라보는 자리에 적멸보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통도사, 오대산 중대, 법흥사, 봉정암의 적멸보궁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瑪瑙)와 관련이 있다.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며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수(水)'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水瑪瑙塔)'이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한다.

수마노탑은 고려시대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전석탑이다. 기단 6단·탑신 7층·상륜부로 구성돼 있으며 탑의 높이는 9m이다.

한국에서 찾아보기 드문 모전석탑은 재료를 벽돌처럼 쌓아서 탑을 조영한 '전탑계'와 석탑처럼 적층해 조성한 '석탑계'로 나뉜다.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전탑계 모전석탑'이며, 정암사 수마노탑도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모전석탑은 국보 4개, 보물 5개이며, 이중 전탑계 모전석탑은 총 4개(국보 2개, 보물 2개)다.

또한 정암사와 수마노탑은 현존 적멸보궁 가운데 설악산 봉정암과 함께 석탑을 이용해 보궁을 형성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석재를 벽돌 형태로 가공해 축조한 모전석탑 형식과 정암사 가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한 것은 고려 시대 유행한 비보사탑 개념 속에서 건립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전석탑으로,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고회암(돌로마이트)으로 제작됐다. 사리신앙과 산천비보사상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라며 "탑지석을 비롯한 자료에서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건립 시기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대웅전의 내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찰 내 각종 편액(扁額)과 불상 대좌의 묵서, 그 밖에 근래 발견된 사적비와 중수기 등을 종합해 보면 17세기 후반 무렵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황사 대웅전은 삼존불을 봉안한 정면 5칸의 대형 불전이며,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전면의 배흘림이 강한 기둥은 조선 후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이다. 대웅전의 외부 단청은 근래에 채색됐지만, 내부 단청은 17~18세기 재건 당시의 상태를 온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봉황사 대웅전은 17세기 말에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면 5칸의 당당한 격식을 간직한 조선 후기의 불전"이라고 지정 예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과 안동 봉황사 대웅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와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도사, 생전예수재·가사불사 봉행한다

윤달 맞아 5월 3일 입재
6월 20일까지 작법 시연
영산전서는 가사방 운영
재가불자들 동참해 제작

부산 통도사가 음력 4월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생전예수재'를 5월 3일~6월 20일, '가사불사'를 5월 3일~6월 15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전예수재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다음 생에 받을 과보에 대해 미리 재(齊)를 지내는 의식으로 일명 '생재(生齊)'라고도 불린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며 삶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자신을 위해 미리 올리는 천도재다.

입재는 5월 3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이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공으로 시작해 오전 11시 법사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진다.

법문은 △입재 5월 3일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사) △5월 10일 광우 스님(통도사 노전) △5월 17일 법산 스님(전 동국대 이사장) △5월 24일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5월 31일 인해 스님(통도사 강주) △6월 7일 우진 스님(서축암 감원) △6월 14일 선행 스님(전 선운사, 백양사 강주) △회향 6월 20일 현문 스님(통도사 주지)이 설법한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49일간 진행되며 매주 법회 후 천도재가 봉행된다. 특히 회향일에는 생전예수재 천도재 전통의식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는 작법이 선보인다. 회향법회는 오전 8시에 시작하며 생전예수재 전통 작법의식을 위해 전통범음범패 스님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통도사 가사불사는 생전예수재와 동일한 5월 3일 입재해 지장재일인 6월 15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

통도사는 가사불사를 위해 영산전에 가사방을 운영한다. 가사불사 기간 동안 재가불자들은 영산전에 모여 스님들이 수하는 오조가사와 마니가사(보살계를 15회 이상 수지한 불자들이 입는 가사)를 직접 만들며 제작에 동참한다. 통도사는 영산전에 전통 가사를 전시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가사불사를 위해 도편수로 명천 스님이 지도한다. 명천 스님은 고려 가사를 고증 복원해 손으로 손수 지은 작품 '복전의(福田依)'로 제24회 대한민국불교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가사불사 회향일에는 불자들이 제작한 가사와 조계종 가사원에서 제작한 대가사를 함께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이운한다. 이운식은 통도사 율원에서 집전해 가사를 이운하고 설법전 상단에서 가사 점안식 후 스님들께 공양한다. 이운식에서는 불자들이 동참해 꽃가루를 뿌리며 가사불사에 장엄함을 더 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생전예수재는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인 죽음을 수행방편으로 삼고 살아 있음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가사불사는 법의를 공양 올리는 뜻 깊은 불사이다. 통도사 가사불사는 전통을 계승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불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모든 법회와 행사에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종단과 관공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밝혔다. 055)381-12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강원 문 열다

4월 22일 입학식 개최



선암사는 4월 22일 특별강원 입학식을 개최했다.

스님들의 향학열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는 4월 22일 경내 만세루에서 40여명의 신입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0학년도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기존 전통강원 17명과 특별강원 24명이 신입생으로 참석했다.

특별강원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러 종단 스님들에게 전통강원의 공부방식으로 별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4명의 입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국적으로 5개 종단의 신입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입학식에서 주지 시각 스님은 "선암사는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으로 오랜 기간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선교양종의 근본도량"이라며 "사찰운영이 힘든 가운데서도 부처님 법 공부를 위해 참여해 주신 수행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원 7주년 김해 바라밀선원 '삼존불' 점안

4월 18일 점안법회 봉행


바라밀선원은 4월 18일 '개원 7주년 기념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경남 김해 바라밀선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아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4월 18일 선원 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7주년 기념 삼존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증명법사로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동참했으며 통도사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 불복장 작법전수자 정각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예불과 점안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안 스님의 법문 및 인사말이 이어졌다.

지안 스님은 "부처님을 모신 공덕으로 바라밀선원 신도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에 덕을 펼치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며 삶이 편안해지길 바란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바라밀선원은 주불인 석가모니불상 좌우에 아미타불상과 약사여래불상을 조성해 점안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자기업 제주푸드, 소외계층에 생닭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 통해 2천마리 보시



제주푸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닭 2천마리를 전달했다.

대구의 대표적인 불자기업인 (주)제주푸드시스템(공동대표 권오삼, 박용관)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백숙용 생닭 1,800마리를 보시했다.

(주)제주푸드시스템은 4월 21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대구 혜인정사 주지 진송 스님을 통해 전주교도소, 전북경찰청,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전주소년원, 청소년쉼터 천사마을, 전북종무원 교구 1사 1선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찰에 전달됐다.

이번 생닭나눔은 진성 스님과 진송 스님의 주선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사태로 면회가 완전 차단된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800마리, 전주소년원에 100마리를 전달했다.

또 전북 경찰청과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는 전의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500마리의 닭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